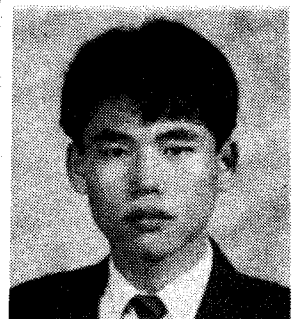


◇기획시리즈 —올바른 평화론의 정립을 위하여 <4>

평화 더이상 이용될 수 없다!



임정환
(소련 및 동구문제 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현존하는 동구사회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혁의 폭과 속도는 말 그대로 '혁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동서 냉전의 상징인 그 높은 베를린 장벽이 한발의 총성도 없이 무너져 내리고, 헝가리와 폴란드의 공화국이 되고, 폴란드에서 비공산 연합정권이 들어서고, 체코에서는 '프라하의 봄'을 다시 맞고있는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냉전시대가 끝났다! 전후 시대가 대과가 되었다! 라는 말들은 한 역사의 종말의 소리만을 들려주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주역은 물론 소련이 행하고 있으며

고 전세계 평화운동의 현실태를 가능케 하고자 한다.

II.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1. 소련 외교정책의 전개과정

소련 외교정책의 기초는 10월 혁명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에 따라 평화공존원칙의 일관된 실행이 그 부단한 목표였다.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혁명 이후 여러 위대한 대외의 여정 중, '반혁명 세력과 제국주의전쟁 속에서 혁명정권의 수호와 세계혁명의 달성'의 시기에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1918년 3월)에 의해 처음 나타났다.

이 조약은 혁명 초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모순론과 계급투쟁의 논리를 국제정치 영역에 도입시킨 '자본주의 최고발전 단계로서의 제국주의론'에 입각한 전술수사였다. 이 조약은 건국이 어려운 회색과 양보를 강요했으나 조약후에 소비에트정권은 내부의 반혁명세력과 성공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로마 소련 불타오르듯 동구공산 국가들의 동요와 중공분리, 세계 공산주의운동에 소련의 제3세계 관계 약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자 우월한 핵무기의 보유를 통한 '공격적이며 전술적인 평화공존론'을 제정했다.

이 대외노선은 (1)군비확대를 통한 사회주의의 승리 (2)제3세계에 대대적인 경제 및 무력지원을 통한 혁명수출전략 (Communism by Example and War) (3) 대미우위 정책을 통한 동구권의 결속강화 (4)핵무기 제한회담 (SALT)의 지속적인 추진을 내용으로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열세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모순들은 국내경제발전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데서부터 시작하여 대외관계에서의 긴장완화라는 필연성을 제기하였고 고르바초프 대외정책의 새로운 철학인 '새로운 사고'로 상호의존적 평화공존론을 대두시켰다. 구체적이면서 전면적인 평화공존론으로 평가될 수 있는 고르바초프의 대외노선은 미·소군축협상을 통한 동서 긴장완화작업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 서방과의 관계개선과 과학, 기술 협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제3세계에 대해서는 혁명, 반혁명의 수출을 반대하고 외채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운동을 전개하는 국가들의 노력을 지지한다.

새사고는 제3세계에 대한 혁명·반혁명의 수출을 반대하고 외채문제를 비롯한 경제적 지원운동을 전개하는 국가의 노력을 지지한다.

고르바초프는 그것이 맑스-레닌의 시대에서는 정당했는지 모르지만 가공할 핵무기의 출현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기에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역사를 한계없이 혁명으로 다른 계급을 타도함으로써 발전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하며, 인류전체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인류적 가치 우선의 개념이다. 계급적 세계관에서 보면 계급적 대결은 이제 핵대결에 이르렀다고 되었고 현대의 성격은 바로 인류전체가 걸린 것이므로 전인류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핵전쟁의 회피를 비롯, 세계적인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에너지, 천연자원의 고갈 등 절박한 전인류적 위기는 몇몇의 국가대국, 또는 두개의 몇몇개 계급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신사고'와 기존의 '평화공존' 개념의 접합을 지향한다. 고르바초프 이전의 평화공존이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투쟁이 갖는 특수한 형태로 이해되었으나 고르바초프는 '평화공존이 계급투쟁의 특수형태'라는 당당성을 '평화공존은 선진국과 협력하여 과학·기술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적

소련은 새로운 사고에 입각한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 운동은 평화에 의한 투쟁속에서 근산복합체의 침략적 조류를 약화시키고, 제국주의의 제3세계에 대한 무력개입을 저지시킬 것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새로운 사고와 군사독트린

고르바초프는 미국이 소련을 군비확대 경쟁에 끌어들이므로써 사회주의를 망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사고의 개념 아래 군·확정론을 탈출하려고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se)개념을 내놓았다. 이전까지 소련은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우위를 가진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선 상태에서, 적어도 군사적으로 대등하게 되려왔다. 그것은 결국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고갈시켜 소련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쟁을 소련 스스로 해온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련경제와 사회발전은 가속화시키고 사회주의의 당위적 실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지출과 군사지출의 상호관계를 가장 알맞게 하

글심는 순서

1.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의의
2. '사회주의 평화론'의 발전과정
3. 서유럽의 평화운동 성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5. 민족모순의 해결과 관련하여 평화운동 (아·태지역 중심으로)
6. 한반도내 평화운동의 현황과 전망
7. 기획서

의 미·소는 냉전시대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정립할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는 말은 현대세계의 변화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비한 총성의 매카니즘은 지금까지 동구사회주의국가들이 국제정치적 좌표를 설정하는 구조를 지칭하였던 소련을 정점으로 사회주의적 본업구조에 입각한 국제질서의 하위체계를 의미하였다. 실제 소련은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유고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지역에 군사적으로 진입하여 공산정권을 확립하였으며, 여기서 발생한 핵전쟁을 바탕으로 동구로 하여금 소련이 걸어왔던 사회주의화의 과정을 걷게 하였다.

고르바초프의 세계관과 철학인 새로운 사고는 핵전쟁의 거부와 불려체제의 국제적인 실현으로 그 군사력의 효능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세계관을 현실의 사회주의의 자기완벽화 운동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이의 성공을 위한 전면적 냉전체제에 대한 평화체제의 우위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IV. 결론

영원한 체제대결 철학은 필연적으로 자체 생존의 가장 확실한 보장으로서 무한한 군사력 강화와 군사력 숭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우리 각자의 머리위에 3톤 분량의 TNT를 이고 살게 한다.

또 '남의 기생상태와 복의 표식상태'라는 세계의 양극화 또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세계관과 철학인 새로운 사고는 핵전쟁의 거부와 불려체제의 국제적인 실현으로 그 군사력의 효능을 감소시켰다. 이러한 세계관을 현실의 사회주의의 자기완벽화 운동으로서 페레스트로이카와 이의 성공을 위한 전면적 냉전체제에 대한 평화체제의 우위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련외교정책의 기초인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평화공존의 변증법적 상관관계로서 조망해 볼때,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사고의 외교정책은 보다 강력하게 대세계 평화공존과 더불어 자국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적극 평화공존은 상호협력과 상호의존을 강화하는 신평화공존의 측면에서 전개될 것이다.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외정책-평화공존, 핵무기 경쟁의 종식-은 분명히 사회주의 본래의 이념인 인본주의(인도주의)의 정착화라고 볼 수 있다. 소련의 새로운 사고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인본화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며, 현대적 세계평화운동은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군사주의적 편견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발전과정을 가지고 국제평화체제의 실현적 연대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 주체자는 민중이어야 할 것이다.

평화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본 동구권 변혁



◇국제 상호의존과 협력의 신평화공존시대는 동서 냉전체제의 불식을 의미한다. 사진은 서독인들이 냉전체제의 대립적 상징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장면

상호협력 강화로 평화공존과 자국발전도모 냉전극복- '초인류적 생존'에 입각한 사고요구해

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국가에도, 자본주의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기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모든 계급, 모든민종들이 협력해서 풀어나갈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다가오는 세계역사의 발전은 모든사람, 모든국가가 보편타당하다고 믿는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해 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상호의존의 세계에 관한 고르바초프의 인식이다. 핵무기의 등장과 핵전쟁은 인류에 전면적 파멸을 안겨줄 뿐이며, 문명, 그자체와, 존속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역사상 처음으로 뚜렷해진 결과, 인류는 이제 하나의 공동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변화의 또하나의 요인은, 모든 국가가 상호협력하지 않을때 해결이 불가능한 가공할 문제가 벌어지고 고쳐 규정했다. 즉 지금까지의 평화공존정책은 사회주의정권이 세계혁명을 위한 '시간별기 전술'로 간주되었으나 새로운 사고에서는 장기간의 안정된 국제관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의 정의는 제3세계 민족민주운동체제에게 커다란 정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인데 (1)프롤레타리아는 본래부터 전인류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는데도 프롤레타리아의 이익과 전인류의 이익 사이에, 모순이 있는것처럼 다루어 프롤레타리아가 계급이익의 역제를 주장한다는 것 (2)각국민민의 계급투쟁없이 소련의 영향력만 확대되면 핵무기의 폐기는 세계의 진보를 실현할 수 있다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의 방기라고 비판되고 있다. 그러나

는일이 필요하였으며, 이전까지의 '상호의존' (이른바 '역지독트린')은 과학기술혁명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volution)시대에 사회주의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경제적 침체와 군비팽창의 모순을 타파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핵,통상전쟁능력을 강화해온 군비증강 정책을 비판하고, '자국 안전의 손실없이 각국간에 정치적 대화와 협정 등으로 군사적 삭감이 가능하며 전 력수준도 떨어뜨려 공적적 수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중 국에는 방어능력만 남는 군사력만 보유하게 하자'는 방어적 방 위'정책의 틀을 제시하게 된다. 세바르드나예의 2000년까지 모든 외국기지 철폐와 해외주둔군 철수계획 발표와, 미국주장한 베커

행함으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체코사태 이후에도 동 구에서의 사회주의 개혁운동과 탈소 독립운동은 그치지 않았으나, 소련에서 시작된 혁명적 대 변혁과 그에 수반되는 '새로운 사고' 외교정책은 냉전종식과 사회주의 발전의 전제조건인 동 구의 민족자결을 가져와 동구에서 개혁열풍을 불게 하였다. 이는 군사적 개입의 합리화로 인식되 였던 '사회주의 위협론'과 '브레 즈네프 독트린'이 풍미하던 냉전 시대가 역사속에서 사라지고 나 라는 독자적인 사회발전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어느 나라도 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는 것이다. (신 베오그라드 선언) 이러한 개혁 열풍 속에서 현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헝가리 사



●조창현(84년 경제대 선출공천과 졸업) '제정당립 뉴저지' 대리

“地球村 새 빛의 창조자...우리는 경희!”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희의 건학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미국은 완성된 한 국가가 아니라 아직도 '탄생하고 있는 중'의 나라인 것 같다. 가장 오래된 미국 땅 중의 하나인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이 인상은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조창현동문(30·선유공학자출)의 열렬한 참석이메리가 있는 뉴저지 포트리의 아침은 일없이 넘쳐 그 느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마주한 맨하탄의 고층빌딩에 뒤덮여 서있는 크고 웅장한 나무들의 숲이 16세기 프랜티어들의 눈에 비친 개척의 땅 그대로다. 아침 조깅 길에는 으레 미국군과 군인들만들이 먼져이다. 이 곳의 지리만큼이나 업무도 익지않은 부원초기 급한 유니폼시장을하루를 하게 됐다. “지도 한 장을 가이드로 일대의 유니폼이커를 직접 갔다나야 했지요. 뒤,영락없이 모교의 광활한 캠퍼스에서 막 들어선 신입생들이었습니다.” 그날, 뉴저지와 뉴욕을 술하게 둘러싸고있는 조동문은 무한한 자연과 무한한 문명을 탄생시키고 있는 자연 미국을 보았다. “미국은 절망을 모르는 ‘바다의 여인’이었습니다. 활기넘친 적극성과 과감함의 여유를 갖고 이천조 역사를 쌓아 올리고 있는 프랜티어였습니다.” 그리고 맨하탄의 ‘실드 유니폼’ 사에서 인에게

세일즈 매니저와의 만남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삼십을 넘어서도 젊었고 있었네. 그는 감동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가 경희까지 잘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86년까지 UN에서 일하면서 한국의 경희대가 제정한 ‘세계평화의 날’에 누구도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 덕에 그날의 시장장은 대성공이었다. 구하기 힘든 각종 카탈로그와 샘플, 정보를 트렁크 가득 싣고 워싱턴 보르지를 건너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구촌 새 빛의 창조자... 우리는 경희!” 모교의 ‘키보로’ (路)를 많은 피곤길의 집안에서 교가와 구호를 불러 세기까지 아내가 큰단위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경이로운 역사의 우리 경희가 지금도 가장 크게 탄생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임을 이만 뉴저지에서!” 이날 뉴저지 포트리에서는 작고 오붓한 ‘경희의 밤’이 개최되었다. 조동문의 부인도 경희인 출신인 것이다.

